

# 영동고속도로 안산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결의안

(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483
----------	-------

발의년월일 : 2020. 10. 27

발 의 자 : 송바우나 의원 등 21명

## 1. 주 문

- 영동고속도로 안산시 구간 확장 공사 시행에 따라 그간 소음·진동·분진 피해 지역과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조사하여 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 터널을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 2. 제안이유

- 안산시는 그동안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신설과 확장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며 고속도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없이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피해 확산과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제안함.

## 3. 주요내용

-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시행 전 주변지역 소음·진동·분진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터널 설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향후 예측 가능한 피해 방지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함.

## 4. 참고사항

- 송부처 :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사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전국시군구 단체장

## 영동고속도로 안산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결의안

우리 안산시는 국가와 수도권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영동고속도로를 비롯해 서해안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부지 제공과 행정 협조에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결과로, 영동고속도로의 안산시 통과 구간은 총 22.81km이며 1991년 11월 29일에 안산분기점과 신갈분기점인 안산~북수원간 고속도로를 13.8km 개통하였고, 1994년 7월 6일에 서창분기점과 안산분기점을 연결하는 군자~안산간 고속도로 8.93km가 개통되었다.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건설된 이러한 영동고속도로로 인해 안산시 외곽에 위치한 상록구 부곡동, 양상동, 장상동과 단원구 선부동, 와동, 화정동의 지역 주민들은 안산시 중심부와 영원히 단절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안산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상동(윗버대, 아랫버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여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급격한 자동차 수요의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안산시를 통과하는 영동고속도로를 기존 양방향 6차로에서 6~10차로로 확장하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고, 2012년 10월 31일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시는 원활한 국가 교통망 건설을 위해 적극 협조하였고 우리시 지역을 통과하는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영동고속도로 안산휴게소 건설에도 협조하였다.

이러한 안산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안산시가 영동고속도로 주변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안산휴게소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 공사』와 『영동고속도로(군자~안산~북수원간) 확장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도로구역 변경 결정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구간 중 메트로타운 푸르지오APT 구간, 벌터길 축사 일원 및 화정동 가옥 구간 등에 대해 방음터널 설치를 수차례 요구 하였으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안산시 외곽지역인 상록구 부곡동·양상동·장상동, 단원구 선부동·와동·화정동 일원은 과거부터 소·염소·사슴·돼지 등의 가축을 키우면서 경제 생활을 하는 축산 농가가 많은 지역이었으나,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해 현재 기준으로 소 1,670두, 염소 322두, 사슴 120두, 돼지 6두 등 소규모의 영세한 농가가 있는 곳으로 변하였으며, 그 조차도 고속도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하여 가축의 유산이 빈번히 발생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은 영동고속도로로 인하여 안산시 중심부와 생활권이 분리되고 소음, 진동 및 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가 SOC 사업의 양적 확대만을 추구하며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또다시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 안산시의회는 71만 안산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금번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시행 시 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소음과 분진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시행 전 안산시 구간 주변 주택 및 축사 등을 대상으로 한 소음·진동·분진 피해 조사와 향후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추가 피해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하나, 안산메트로타운푸르지오 아파트, 벌터길 및 부곡동 축사, 화정동 가옥 등 이미 영동고속도로 주변의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방음 터널 설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방음 터널 설치 방안과 그에 따른 효과를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줄 것을 요청한다.

하나,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소음·진동·분진 피해지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피해 방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대규모 토목 공사 진행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020. 10.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